

환영사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

2024. 2. 23.(금) 11:00 / 해양치유센터

시장님!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의 발상지이며 국내 최초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해변인 신지명사십리에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신 **박우량**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시장·군수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탁월한 리더십과 열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속에 시·군정을 발전적으로 이끌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 신지면 출신인 만큼 명사십리 해변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환영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곳 신지 명사십리는 한반도 몇몇 곳의 명사십리 지명과는 다르게 을 명(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조선시대 25대 임금 철종의 사촌인 경평군이 세보가 안동김씨 일가의 세도에 밀려 이곳 신지도에서 3년동안 귀향살이를 하면서 약 460여수의 시를 남기고 1863년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세보는 유배기간 동안 매일매일 피맺힌 설움과 망향의 정이 솟구쳐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명사십리 모래톱에 지팡이를 뚫 삼아 시를 쓰며 한 많은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배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한양에서 짚고 왔던 지팡이 끝이 손끝에 이를 만큼 닳아졌다고 합니다.

3년후, 이세보가 고향인 과천으로 귀향한 이후부터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모래가 파도에 씻겨 나는 소리가 이세보의 한 서린 통곡소리와 같이 들렸다 해서 울 명(鳴)자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유래를 들어 명사십리는 그 어느 곳보다 마음의 울림을 더 크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군수님들께서 명사십리 모래톱에 지역민을 향한 마음의 글귀를 새기신다면 주민들께 큰 울림으로 전해져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개최하는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면서 더욱 의미 있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열정적인 시·군정 추진으로 인해 쌓인 피로를 해양치유센터에서 말끔히 치유 받으시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